

韓國經營學의 擡頭를 위한 基本接近에 관한 考察

徐 南 源*

<內 容>

- | | |
|----------------------------|---------------------------|
| I. 序 論 | II. 韓國經營學의 概念設定 |
| III. 經營學과 韓國經營學의 基本
關係 | IV. 韓國經營研究에 관한 文獻研究 |
| VI. 韓國經營理論研究의 集中分野 | V. 韓國經營現象의 理論化的 範圍와
特性 |
| VII. 韓國經營學을 위한 理論研究의
課題 | VIII. 結 論 |

I. 序 論

經營學이 韓國에 提示되어 敎育과 研究에 있어서 社會科學의 한 分野로 認定되어 온지도 이제는 近 30년이 經過하고 있다.¹⁾ 勿論 韓國에 經營學이 正式으로 擡頭된 時日을 確定하려는 것은 그다지 커다란 意義가 있는 것은 아니고²⁾ 다만 韓國學界에 비교적 새로운 分野로 간주된 經營學이지만

*高麗大學校 經營大學 敎授

- 1) 本論文에서 經營學이라고 하면 經濟界의 主體의 하나인 企業에 따른 研究學問이라기 보다는 組織으로서의 企業의 能率의 活動에 관한 全般的인 論理的 究明學問으로서 見解를 設定한다. 이와 같은 見解은 言及할 必要도 없이 美國의 management 또는 administration이 비단 企業(firm)에 관해서 適用되는 學問論理가 아니라는 理解와 一致하는 것이다.
- 2) 韓國에 經營學이 正式으로 擡頭된 時日을 確定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意見이 있을 수 있으나 論者의 見解로서는 國內에서 經營分野의 學術的 論文誌가 最初로 發刊된 日字를 重要視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論者의 調査에 의하면 國內에서 最初로 發刊된 經營關係學術誌는 高麗大學校의 「經商論叢」이며 그 創刊日字와 發刊日字는 1954年 10月이다.

그 登場時期를 解放後로 設定한다면 그 年輪에 있어서 4半世紀를 넘어서고 있음이 分明하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韓國의 經營學은 아직 國內 固有의 學問의 構成을 形成시키지 못하고 있다. 換言하면 韓國에 經營學이 導入된 以來로 初期에 있어서는 짧은 期間이나마 獨逸의 私經濟學이 經營經濟學의 名稱으로서 經營學의 主體가 되었으며 그 後로는 美國에서 發達한 經營學(management studies 또는 the studies of administration)이 學問의 全領域을 席捲하여 온것이 事實이다.

그러하여 오늘의 時點에서 「經營學」과 「美國의 經營學」은 아무런 特徵的 區別없이 完全한 同義語로서 거의 모든 經營學關係 研究者에게 받아들여져 있고, 다만 古典經營學의 發祥이나 學派를 論하는 경우에만 美國의 經營學이 識別되고 있는데에 不過하다.³⁾

그러므로 現在와 未來에 있어서 美國의 經營學이 韓國에 있어서 經營學의 大本을 形成하고 있는 것임은 論難의 餘地가 없다. 그러던 이는 逆으로 韓國의 經營學에는 이른바 韓國經營學을 아직 正式으로 擡頭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經營學을 韓國이라는 國家的 社會要件속에서 完成시키는데 있어서 하나의 解決을 보아야 할 經營學分野의 基本課題로 設定되어야 하는데 異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一般적으로 모든 社會科學의 個個分野에 있어서는 勿論, 經濟學分野에 있어서 韓國의 現實 또는 韓國의 問題에 관한 研究가 없는 것은 아니다. 事實上 모든 社會科學分野에 있어서 韓國의 資料를 使用하거나 또는 韓國의 事實을 研究對象으로 設定한 學問的 分析을 試圖한 경우 이를 韓國學이라고 한다면⁴⁾ 經營學 分野에도 韓國學이 相當히 造成되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

그러나 여기서 言及된 韓國學이라고 하는 것은 本 論文에서는 提起하고자 하는 韓國經營學과 概念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即 韓國學이라고

3) 現代의 一般 經營學의 發生期에 對한 學派의 識別에 關한 論議에 對해서는 李順龍 “現代經營學의 學派와 系譜”, 經營學論叢, 第23輯, 高麗大學校, 經營大學, 1978, PP. 97~122를 參照하는 것으로 代한다.

4) 社會科學分野 全般에 걸쳐 韓國學을 위한 學問的 努力의 하나는 서울大學校, 東亞文化研究所編 「韓國學」, 岩玄新書, 서울 玄岩社, 1972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經營學分野가 包含되어 있지 않다.

5) 韓國에 있어서 韓國의 經營의 課題에 關한 代表의 研究는 高承濟著 「韓國經營史研究」, 서울 韓國能率協會, 1975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던 비록 그 概念이 아직 定立되어 있지는 않지만⁶⁾ 西歐各國에서 導來한 學問的 論理를 基盤으로 한 韓國的 事實, 現象, 또는 狀況의 分析·研究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하여 本 論文에서 提起되는 韓國經營學은 다음節에서 論하는 바와 같이(따라서 다른 韓國學도 동일하게), 韓國의 經營的 事實에서 學問的理論을 抽出하여 그 構架를 完成시키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⁷⁾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먼저 本 論文이 提起하는 韓國經營學의 概念을 考察하는 것이 必要로 하게 된다. 다음으로 本 論文에서 提示되는 韓國經營學의 概念에 따른 韓國經營에 관한 學術的 研究를 概觀하기로 한다. 그러던 앞으로 韓國經營學의 體系的 發展을 위한 基本的 接近方法이 論議될 수 있으며 이는 本 論文의 가장 核心的 部分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本 論文은 韓國經營學의 體系와 分野別 主要課題에 관하여 概略的인 考察을 試圖하기로 하는 것이다.

II. 韓國經營學의 概念設定

1. 一般學問에 있어서의 韓國學의 概念

앞서 序論에서 言及된바와 같이 一般的으로 社會科學에⁸⁾ 指稱되고 있는 韓國學의 概念이 一定치 않으므로 本 論文에서 提起하는 韓國經營學의 概念을 確定시킬 必要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우선 一般的인 意味에서의 韓國學에 대한 여러가지 見解를 考察하여보던 다음과 같다.

(1) 海外에서의 韓國學觀點

우선 海外에서 韓國學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韓國에 대한 理解를 促求할 수 있는 學問的 努力으로서 科學의 한 獨特한 分野라고 하기 보다는 韓國的 內容이 學問의 核心이되는 것이다. 換言하면 人文, 社會 自然의 三大 科學部門에 관한 排他的 區分이 없고, 또한 各 科學部門內에서의 分

6) 앞서의 說 4에 指稱된 「韓國學」에 있어서도 各 論者は “韓國의 經濟發展” “韓國에서의 學問史”, 또는 “韓國에서의 學問研究 現況”等 여러가지 觀點에서 韓國學을 論述하고 있다.

7) 一般的으로 말할 수 있는 韓國學의 經營學과 本 論文이 提起되는 韓國經營學과의 差異를 經濟學에 比喩를 들어 說明하면 韓國에 관한 經濟研究는 韓國學的인 見地에서는 “韓國의 經濟”로 論題가 集約되는 것이지만 理論化의 次元에서는 經濟發展學(economic development)에 包含될 수 있는 理論的 研究가 擧頭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野에 格別히 拘碍됨이 없이 韓國的 素題를 根據로 하는 學問的 努力과 結果라면 이를 總稱하여 韓國學이라고 하는 傾向이 뚜렷하다.

그러나 海外에서의 韓國學은 主로 人文科學部門의 韓國語, 韓國史, 韓國文學, 韓國藝術等에 集中되어 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⁸⁾ 이것은 再言할 必要도 없이 外國學者나 外國學徒의 關心을 反映하는 것으로서 韓國에 대한 認識과 理解를 增進시키는 觀點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本格的인 韓國에 관한 特定分野를 研究하는데 있어서 先進的인 準備研究段階의 學問內容이라고 하면 그 妥當성이 認定될 수 있다. 勿論 이러한 人門分野 自體의 보다 專門的인 研究를 排除할 必要는 없다.

(2) 韓國에 導入된 先進國學問의 適用狀況에 관한 究明으로서의 韓國學
다음으로 論及될 수 있는 韓國學의 또 하나의 觀點은 先進國에서 定立된 學問이 韓國에 導入이 되어 이를 學問의 研窮에 適用, 또는 開發研究에 活用하고 있는 狀況을 調査把握하는 것을 主要內容으로 設定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때는 多분히 韓國의 學問의 發展水準을 外國과 比較考察함으로써 그 現代性 與否에 대한 評價를 내려보려는 意圖가 含蓄되는 경우가 많으며 一般的으로 自然科學과 社會科學에 集中되어 있다.

事實上 國內에 있어서 學問의 進步를 測定하는 努力은 學界와 社會知識水準을 向上시켜 先進國水準으로서의 生活向上을 期하는 하나의 要件이라고도 할 수 있는 重要한 學問的 課業이다. 그러나 이러한 觀點에서의 韓國學은 韓國學의 全般은 勿論, 또는 核心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것은 마치 文學에 있어서 文學評論이 文學을 發展시키는데 매우 重要한 것이지만 文學의 主體가 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論理의 所産이다.

(3) 韓國社會現象을 素題로한 理論的 適用 研究로서의 韓國學

또다른 韓國學의 觀點은 韓國社會의 內部現象을 特定한 社會科學分野의 一定한 接近方法이나 理論을 通하여 分析考察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再言할 必要도 없이 韓國學의 여러 概念中에서 가장 普遍的인 것이며 오늘날 韓國에 관한 많은 國內외의 論文은 先進國에서 導入한 學問的方法論이나 理論을 前提로 하는 分析을 試圖하여 여러가지 結論에 到達하고 있다. 이에 관한 具體的인 例를 指摘하자면 外國의 大學에서 作成 提出되는 各種의 學位論文은 많은 경우에 韓國內의 過去 또는 現在의 社會

8) 韓國內에서의 外國에 관한 學問中 美國學의 例를 들어 그 內容을 알아보기 위하여 美國學會는 人文科學의 여러 分野에 屬하는 學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西洋史, 文化史, 政治學, 英文學等を 專攻으로 하는 學者의 數호가 많다.

現象을 現代的 調査方法論에 따라 資料化하고 이에 대하여 理論的 分析을 試圖한 경우가 許多히 있음을 말할 수 있다.⁹⁾

그러나 이와같은 觀點에서의 學問的 研究는 그 自體로서 學術的 意義가 充分히 있으며 學問은 本質的으로 社會單位別로 差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價値觀의 變化에 關係됨이 없이 成立되는 하나의 眞正한 論理體系의 所産을 目的으로 하는 것임을 보이는 동시에 이를 立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社會는 서로 樣態가 다른 面을 充分히 保有하고 있고, 따라서 서로 特異한 側面을 說明하고 이에 대한 論理를 究明하는 것이 “地域學”의 特徵이라면 本項에서 考察한 韓國社會現象을 索題로 하는 學問的 努力이 韓國學의 全部라고 規定될 수는 없다.

(4) 韓國的 社會現象의 理論化를 위한 韓國學

一般的으로 學問의 性格을 어떠한 現象을 捕捉하고, 觀察하며, 記述하고, 體系化하고, 他現象과의 關聯을 究明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現象을 支配하는 因果律을 論理的으로 規定하는 이론적 理論의 設定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即 學問의 極致는 現象을 說明하고, 可測하고 그리고 豫測할 수 있는 一般理論(generalized theory)을 發見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先進國에서 究明된 學問的 理論은 勿論 일단 이와같은 理論의 要件을 社會的 背景에 關係없이 滿足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具體的으로 自然科學分野의 많은 理論들은 한 社會에서 導出되었을 망정 다른 社會에서도 동일하게 發見되고 따라서 같은 原理로서 適用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理論의 代表的인 例는 萬有引力의 法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地球上의 어느곳에서나(그리고 宇宙內에 物體가 存在하는 곳은 어디서나) 그리고 어느 時點에서도 成立되는 것임이 너무도 明白히 立證되고 있다.

그러나 社會科學分野의 理論들은 最初로 導出되는 社會의 時代的 條件下에서는 一般化의 要件이 滿足된 것일은 理論의 餘地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社會與件이 地理的 및 時代的 差異가 發生하였을 때에도 理論으로서의 一般化의 要件이 계속으로 滿足되는 것이라고는 斷定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最初의 理論을 定立시킬때의 立證을 위하여 理論根據에 投入된 資料의 範圍가 不可避 社會와 時代의 區別속에 制限될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9) 이에 관한 文獻은 別論로 列擧할 必要가 없으며 이는 社會 科學分野 外國 學位獲得者의 論文題目一을 보면 韓國社會現象을 索題로 한 論文이 壓倒的임을 알 수 있다.

勿論 社會科學의 理論中에서 萬古不滅의 理論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經濟學에서 效用遞減의 原則은 비록 그 計量的 處理에 있어서는 相對效用觀과 絕對效用觀의 두가지 見解의 對立을 보고 있지만 어느 社會와 時代를 莫論하고 成立이 되는 것이다.¹⁰⁾ 그러나 역시 經濟學에서 需要·供給의 理論은 共產主義社會에서는 勿論 獨占資本主義體制下에서도 그 理論의 骨字는 成立되지 않거나 無意味한 것이 아닐 수 없다.

一般的으로 社會科學의 理論中에서 基礎적인 命題에 관한 것은 社會와 時代의 變化에 無關하게 一般性的 要件이 強하게 滿足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고 이와는 對照的으로 理論化 對象의 現象範圍가 크면 클수록 一般性的 要件充足은 弱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再言의 餘地가 없이 現象의 原因과 結果의 連關作用에 介入하는 變數는 現象範圍가 넓으면 넓을수록 많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社會와 時代의 變遷에 따라 影響을 많이 받는 것임이 틀림이 없는 까닭이다.

이와같은 社會科學理論의 脆弱性은 一般的으로 地域學의 必要性을 擡頭시키는 것이고 이는 韓國社會에 對하여는 韓國學의 必要性을 強調하는 것이 된다. 逆으로 말하면 韓國學은 韓國社會現象의 一般理論을 發見하기 위해서나 또는 다분히 先進社會를 背景으로한 一般理論의 韓國社會에의 適用時 修正 또는 補充하는 內容을 究明하기 위해서도 擡頭되고 發展되어야 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創造·開發的 觀點에서의 概念을 強調하는 韓國學은 그 自體가 海外로 부터 導來한 學問과 接近方法과 方法論을 크게 달리하는 獨自的인 것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事實上 學問中에서 方法論 또는 接近方式에 관한 限은 비록 優劣의 差는 있을지 모르나 學問課題의 性格이나 目的에 따라서, 그리고 學問研究者의 便宜나 專門性에 따라서 地域과 時代의 區分없이 自由로히 取舍選擇될 수 있는 性格의 學問礎石이다. 勿論 새로운 接近方式이나 方法論을 創案하여 適用하여도 그것이 學問的 論理에 違背되지 않는다면 無妨하다. 그러면 이러한 共通의이거나 固有的인 基礎위에서 韓國社會現象의 理論化 研究가 遂行되고 그 結果가 海外의 類似한 理論과 比較·檢討되는 것이라면 社會科學의 學問的 完成을 위하여 크게 所望스러운 結果를 產出할 것이 틀림이 없다.

10) 經濟學에서의 効用의 概念과 그 遞減의 原則에 관하여는 論者 著「管理經濟論」, 第7章, 博英社, 1974 參照.

2. 經營學에 있어서 韓國學의 概念

(1) 韓國經營學에 대한 一般的 見解

前項에서 論한 韓國學에 관한 여러가지 概念을 經營學分野에 集中시켜 考察하여 본다면 동일한 結論에 도달한다. 即 經營學에 있어서도 ① 韓國社會에 대한 理解를 도우는 觀點에서 ② 韓國에 導入된 經營學의 適用狀況에 대한 實態把握을 위한 觀點에서 ③ 韓國社會를 素題로한 經營學理論의 適用研究로서 그리고 ④ 韓國의 經營現象에 대한 理論化를 위한 學問開發이라는 觀點등등에서 韓國經營學의 擡頭와 發展을 크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換言하면 적어도 韓國經營現象이 어떠한 次元과 目的에서 介入이 된다면 그것은 廣義의 韓國經濟學으로 看做하는데 커다란 異議가 있을 수 없다.

(2) 本 論文에 있어서 韓國經營學의 概念制限

그러나 本 論文에서 韓國經營學에 관한 接近 方式의 考察은 앞서 本節에서 論한 네가지 概念中에서 (4) 韓國的 社會現象의 理論化를 위한 韓國學을 가리키는 韓國經營現象의 理論化를 追求하는 觀點에 集中制限하기로 한다. 即 本 論文에서 考察되는 接近 方式은 무엇보다도 韓國社會內에서 認知하고 있는, 또는 記錄되어온 여러가지 經營現象에 대한 物質的인 內容이나 側面을 學問的으로 理論化하는 것을 前提로 하여 論議된다는 것이다.

勿論 韓國經營學이 그 發展段階에 있어서 韓國經營現象의 學術的 理論化에 局限될 必要는 없다. 이는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이미 試圖한 科學 特히 人文·社會部門의 學問에 대한 一般的인 考察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韓國經營學의 概念을 前提로 하는 接近方式이 또한 究明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社會科學部門의 學問은 궁극적으로 現象에 대한 깊은 理解를 效果의으로 表現하기 위해서는 理論化를 指向하는 것이므로 같은 理致로 韓國經營學을 可及의 早速히 完成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理論化의 概念을 다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III. 經營學과 韓國經營學의 基本關係

韓國經營現象의 理論化를 위한 韓國經營學이 앞으로의 發展段階에 있어서 本來의 經營學과 如何한 關係에 있는가를 究明해 볼 必要가 있다. 그것은

모든 學問은 體系的인 構成이 必要한 것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韓國經營學이 充分한 體系的 基盤을 갖도록 하여 效果的인 發展이 促進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參考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여기서 本來의 經營學이라고 하면 論理的으로는 經營學의 總體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實際로는 序論節에서 言及된 바와같이 美國社會에서 構成되고 發展된 然後에 韓國에 導入을 본 經營學을 가리킨다.

그러면 總體的인 經營學과 韓國經營學의 關係를 設定함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두가지 方向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韓國經營學의 分離될 수 있는 한 分野로 看做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서로 區分된 經營學의 各 分野의 特殊理論課題로 다루는 것이다.¹¹⁾

(1) 經營學의 1個 各論으로서의 韓國經濟學

첫째의 方向인 韓國經營學을 經營學의 한 分野로 看做하는 觀點은 韓國經營에 관한 理論的 研究를 經營學의 하나의 各論으로 設定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韓國經營學을 集約化하는 意義가 重視되는 特徵을 지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各論的 關係設定은 再言할 必要도 없이 韓國經營特有的 本質을 集中的으로 究明해 나가는데 매우 效果的인 接近方式으로 看做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社會科學分野의 連關研究를 위해서도 매우 便宜한 構成方向이 되는 것이다.¹²⁾ 그리고 韓國學을 象徴的으로나 意圖的으로 集中發展시킬 必要가 있을 때에는, 即 學問의 經營이라는 觀點에서는 하나의 各論으로서의 方向設定이 매우 效果的인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2) 經營學各論의 特殊課題로서의 韓國經營學

다른 하나의 基本關係는 韓國의 經營現象을 理論化하는데 있어서 이미 經營學이 構築하여 놓은 各論의 體系的 區分과 課題分類에 따라서 韓國經營理論을 展開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基本關係는 韓國經營學의 所處를 經營學體系에 따라서 分散시키는 結果를 誘發하는 것이지만 本來의 經營學의 觀點에서는 總體的인 體系化를 위해 必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具體的으로 例를 들면 韓國의 人間關係에 관한 特徵을 研究함에 있어서는 既存의 人間關係論의 理論과의 關係에서 또는 人間關係에 관한 既存 接近方式의 基盤위에서 學術的 究明을 試圖하는 것을 말한

11) 또하나의 關係는 完全히 遊離된 獨自的인 學問分野로서의 韓國經營學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論外로 한다.

12) 다른 人間 社會科學에서는 大體로 적어도 表面的으로는 韓國學을 各論으로서 關係設定하는 傾向이 있다. 例로 宗敎學, 倫理學, 經濟學등은 特徵을 하나의 總體的인 各論으로서 다루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다. 따라서 이 基本關係는 韓國經營學의 理論的 要件을 本來의 經營學의 理論的 要件에 보다 密接하게 接近시켜 韓國經營學의 學術的 水準을 確保하는데 보다 效果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兩 基本關係의 比較

本節 前項에서 提示된 基本關係는 經營學의 體系上的 韓國經營學의 位置를 말하는 것으로 두가지 경우가 다 可能하고 理論的 모순은 없다. 그러나 韓國經營學 自體의 體系 또는 經營學 各論으로서의 韓國經營에 관한 研究內容이 充分히 蓄積이 되어 있지 않은 狀態에서는 韓國經營學이 經營學의 獨自的인 하나의 各論分野를 形成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經營學과 韓國經營學의 두가지 基本關係는 서로 排他的인 性格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韓國經營學의 初期에 있어서는 既存經營學 各論의 韓國的 特殊課題로서의 位置를 차지하다가 相當한 時日이 經過하고 韓國經營에 관한 研究가 集積이 되어 體系的인 構成이 可能한 段階에 이르르면 獨立된 各論으로 看做되는 것이 妥當하다는 結論에 도달한다.

IV. 韓國經營學에 관한 文獻分析

1. 韓國經營研究의 特性和 實態

韓國經營學의 學問的 擡頭의 接近方式을 究明하는 目的을 達成하는 또 다른 基本調査는 現在까지 發表된 韓國經營에 관한 研究論文을 分析하여 보는 일이 된다. 卽 지금까지 韓國經營에 관한 研究發表文의 性格과 動向을 把握함으로써 이를 論理的으로 可能하면 韓國經營學의 形成特性으로 反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構想에 대한 配慮가 된다.

이를 위하여 本 論文에서는 便宜上 高大 經營大에서 發行되고 있는 「經營論叢」, 서울大 經營大에서 發行되고 있는 「經營論集」, 그리고 韓國經營學會에서 發行을 보고 있는 「經營學研究」의 經營 分野의 세가지 定期刊行物을 選擇하여 調査分析을 實施한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韓國經營에 관한 研究活動의 低調

무엇보다도 韓國國內의 經營學研究가 韓國經營을 研究課題로 設定하고 이를 實行하는 狀態가 매우 低調함이 判明되었다. 卽 概略的으로 韓國經營에 관한 發表는 每 發行物마다 平均的으로 1編 以下の 數値를 보이고 있으므로서 韓國國內의 經營研究는 아직 韓國의 經營에 관한 研究를 本格的으로 다루는 段階에 到達하고 있지 않음을 充分히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學術的 研究와 컨설팅研究의 混同

무엇보다도 韓國經營에 關聯된 論文中에는 비록 發表도 定期 刊行物이 學術誌임에 分明하지만 目的과 內容에 있어서는 學術論文 이라기 보다는 韓國經營現實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 研究라고 함이 보다 妥當한 發表文이 있음이 判明되었다. 換言하면 비록 形態에 있어서는 學術論文으로서의 格式을 갖추고 있지만 實質的 目的, 內容, 體系 그리고 結論에 있어서는 컨설팅 報告에 適合한 敘述도 되어 있는 경우가 相當數 發見되었다.

勿論 이와같은 發表文은 그 水準에 있어서는 一定치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價値있는 學術論文으로의 轉換 또는 導出이 可能한 것도 있는 反面 경우에 따라서는 發表의 性格이나 水準에 있어서 學術的 論文化의 努力이 不可能하다고 判斷되는 것도 있다.

또한 컨설팅 研究에 屬한 發表文의 關係題目의 特性은 주로 會計 財務關係法則, 政府施策, 社會保障法規制度, 生産管理方法등에 集中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經營學이 오늘날 韓國經營現實과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다만 學術法上的 發表를 위한 學問化에 있어서는 低調한 것으로 評價함이 妥當할 것이다.¹³⁾

(3) 學術的 用語의 不使用에서 오는 混同

韓國經營에 관한 研究發表中에서 發見되는 特性의 하나는 經營學에서 提示되지도 않고 論文內에서 明確한 定義를 하지 않은 概念과 用語를 使用함으로써 論文의 테마와 論文의 學術的 體系化에 대한 理解를 어렵게 하고 있는 點이다. 이러한 研究論文은 韓國經營學을 形成하는데 文獻으로 引用될 可能性을 減少시키거나 아니면 韓國經營學을 形成하는데 錯覺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러한 事實은 韓國의 社會的 概念 또는 用語를 無意識적으로 使用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는 韓國의 經營哲學(management philosophy)과 人事管理分野에 대한 研究에 많이 나타나 있다. 例를 들면「經營理念」, 「經營觀」, 「經營意識」, 또는 「從業員態度」등이다.

2. 學術的 論文의 研究特性

韓國經營에 관한 研究發表文中에서 순수하게 또는 直接的으로 韓國經營

13) 이러한 目的을 발표문은 흔히 「...의 개선에 관한 研究」라는 題目을 보이고 있다.

學의 形成에 寄與할 수 있는 學術的 論文은 그 件數가 매우 적은 것으로 判明된다. 앞서 言及한 三大主要文誌의 總約 3百編에 가까운 發表文中에서 學術的 意義가 있는 韓國經營에 관한 論文은 20餘編에 不過하다.¹⁴⁾

그러던 學術的 意義가 있다고 認定되는 韓國經營課題에 관한 研究論文을 第2節 B의 韓國經營學의 概念設定에 있어서 提示된 네가지의 類型別로 區分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 | | |
|----------------------|-----|
| (1) 韓國經營을 記述는 類型 | 7編 |
| (2) 韓國內 經營學水準의 分析類型 | 1編 |
| (3) 韓國經營現實의 理論的 分析類型 | 17編 |
| (4) 韓國經營現實의 理論化類型 | 3編 |
| 計 | 28編 |

그러므로 오늘날 韓國의 經營學者中에서 韓國의 經營課題에 대한 學術的 意義가 있는 研究關心事는 (3)의 韓國經營現實을 既存 經營學 및 隣接學問의 理論을 適用하여 外國經營 現實과의 差異 特성을 究明하여 보는데 가장 集中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1)의 韓國經營學을 記述하여 보는데 主目的을 둔 것으로 보이는 論文이 많은 便이며 따라서 (4)의 韓國經營現實의 理論化를 위한 類型에 屬하는 論文과 (2)의 國內의 經營學水準의 分析을 위한 類型에 屬하는 論文數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韓國經營에 관한 現在까지의 文獻實態에 대한 간략한 考案은 앞으로의 韓國經營學의 擡頭를 위하여 여러 가지 參考點을 提示하는 것은 分明하다. 그러나 本 論文에서 序節에서 밝힌 바와 같이 學問의 本質과 目的은 궁극적으로 現象으로부터 理論을 導出하는 데 있는 것이라는 一般的 및 基本的 理解에 근거를 두고 第(4)의 類型인 韓國經營現實로부터의 理論抽出을 韓國經營學의 가장 中心內容이 되어야 한다는 前提下에 韓國經營學의 擡頭를 위한 보다 具體的인 接近方式을 論하기로 하는 것이다.

14) 이와는 對照的으로 우리나라의 各 大學校의 大學院 經營學專攻 및 經營大學院의 博士學位 및 碩士學位論文의 題目은 韓國의 經營에 관련된 課題를 적어도 絕半以上 反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學位論文들이 韓國經營學의 形成에 寄與할 수 있는 水準이 되는 것인지는 本 研究에 있어서 確認되지 않고 있다. 다만 論者의 見解로서는 지금까지의 碩士學位 論文指導의 經驗을 통해서 推定할때 學術的 水準에는 未洽하는 것이 大部分일 것이라는 推定도 無妨할 것으로 본다. (國內 博士·碩士學位論文의 題目一覽, 1977. 8~1979. 2分은 韓國經營學會 發行「經營學研究」, 第8輯, 1972 2號의 末尾에 收錄되어 있다).

V. 韓國經營現象의 理論化的 範圍와 特性

1. 韓國經營의 理論化的 對象範圍

韓國經營學을 構成할 수 있는 理論的 內容은 韓國經營現象을 對象으로 하는 限은 아무런 制限을 加할 必要가 없다. 即 이미 一般經營學에서 提示되어 있는 經營現象이 일단은 그 全部가 韓國社會에서도 展開되어 있다고 보면 一般經營學이 對象으로 하고 있는 經營現象의 全部가 韓國經營學의 對象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韓國經營學의 對象은 그 範圍가 일단은 老大함을 免치 못할 것으로 理解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韓國經營理論의 對象에 관한 基本的 理解는 韓國經營學의 擡頭를 위해 그 構成分量上 커다란 難點을 提起하는 것으로 따라서 可及의 對象範圍를 壓縮하는 論理的 根據가 적어도 假設的으로라도 設立될 必要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韓國經營理論의 特性化를 위한 論理

韓國經營學의 範圍를 壓縮하는 論理的 方法은 韓國經營理論을 一般化된 理論(generalized theories)으로 形成시키는 것이 아니라 一般經營學에서 提示된 여러가지 經營理論에 대한 特性화된 理論(specialized 또는 limited theories)로 形成시키는 것이다. 換言하면 韓國經營學이 經營學의 特殊論이라는 學問的要件이 基本的으로 成立되는 것이므로 韓國經營에 관한 理論도 一般經營理論의 特殊理論으로 構成發展시키는 것은 論理的으로 매우 妥當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一般經營理論의 特殊理論의 構成은 一般經營管理論을 韓國事例에 適用하여 韓國現象의 特殊性을 分析 把握하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一般經營理論을 韓國現象을 理解하는데 適用하여 보는 것도 韓國經營學의 內容을 構成할 수 있지만 이는 第2節에서 밝힌바와 같이 하나의 觀點에 不過하며 적어도 本論文이 對象으로 하는 보다 學術性이 강한 理論的 韓國經營學의 擡頭를 위해서는 一般理論을 韓國事例에 適用하는 것으로서 韓國社會에 관한 特殊理論이 形成되는 것이라고 看做될 수는 없다.

그러면 經營理論의 韓國特殊理論은 그 自體가 理論的要件을 總體的으로 具備해야 하는 것임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韓國經營學의 理論形成에 관한 研究는 다음의 過程이 遂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段階(1) : 韓國經營理論의 目的과 對象設定
- 段階(2) : 一般 經營理論의 選擇 또는 關聯性檢討
- 段階(3) : 理論對象인 韓國經營現象分析
- 段階(4) : 韓國의 特殊經營現象의 分離把握
- 段階(5) : 特殊經營現象에 대한 假設提示
- 段階(6) : 假設에 대한 立證 및 理論化決定
- 段階(7) : 樹立된 (特殊) 理論의 本 經營理論과의 合致性與否檢討

그런데 단일에 理論化 研究對象이 되는 韓國經營現象이 一般 經營現象의 特殊現象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本 現象 및 本 現象에 관한 一般 經營理論에 發見되지 않은 경우에는 特殊理論으로서가 아니라 一般 理論의 導出을 위한 學術的 研究가 成立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前記段階(6)의 假設에 대한 立證을 韓國資料뿐만 아니라 先進國을 包含한 外國의 資料를 包含해서 成立與否를 檢證하여 불 必要가 있는 것이다.

VI. 韓國經營理論研究의 集中分野

論理的으로 韓國經營現象을 素題로 한 一般經營理論의 特化理論으로서 또는 獨自의인 韓國經營理論은 經營學의 모든 分野에서 發生될 수 있다. 卽 韓國의 經營現象의 經營學의 모든 分野에 걸쳐 展開되는 것이라면 이에 관한 理論化를 위한 研究는 어떠한 經營學의 分野에 限定되는 必要性은 없다.

그러나 앞서 論及한 여러가지 韓國經營學의 特性을 考慮하여 볼 때 經營學의 分野別 性格으로 因하여 韓國經營現象에 대한 理論化研究는 一定 分野에 대한 集中現象을 나타내는 것이 不可避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韓國經營學은 基本的으로 韓國社會가 一般經營學을 擡頭시킨 先進工業社會와 동일하지 않는 側面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發祥이 可能한 것이므로 經營學의 分野中 社會的 問題와 關聯성이 깊은 分野는 韓國經營學의 擡頭를 위하여 보다 活潑한 對象이 되는 것이고, 反對로 社會的 問題와 關聯성이 적은 分野는 研究活動이 低調함을 免치 못할 것이 分명한 까닭이다.

그러면 여기서 韓國經營現象의 理論化를 위해 研究活動이 活潑한 分野를 區分하여 보던 다음과 같다.

1. 研究活動이 活潑하게 期待되는 分野¹⁵

(1) 經營哲學：韓國 經營者의 經營活動에 대한 基本的 思考, 價值觀 및 行動原則에 관한 研究

(2) 經營政策：韓國社會에 있어서 韓國經營者의 社會的 責任, 韓國的 經營政策의 本質과 應用, 韓國的 經營의 基本的 性格 등에 관한 研究

(3) 人事管理：韓國人에 의한 韓國人에 대한 在來的(歷史的) 人的 管理 方法의 特性과 現代에 있어서의 西歐式 人事管理方式의 導來에 미치는 影響 등을 論한다.

(4) 組織管理：韓國의 歷史的 官僚制度의 經驗이 現代의 企業經營組織의 形成에 미치고 있는 事實에 관한 研究 및 現代의 韓國社會의 風土의 特殊性이 經營組織에 미치고 있는 事實에 관한 研究

(5) 市場論：韓國의 在來的 商慣習에서 起因하는 流通關係 商行爲의 特性에 관한 研究

(6) 財務管理：韓國의 在來的 資金市場의 慣行이 現代의 資本, 金融市場에 미치고 있는 事實究明에 관한 研究(保檢論로 財務管理에 準한다.)

(7) 會計學：韓國的 社會特性에 起因하는 會計原則, 會計處理, 監查準則 등에 관한 研究分野

(8) 企業環境論：韓國的 企業環境의 特殊性 研究

2. 研究活動이 低調할 것으로 期待되는 分野

(1) 生産管理：韓國土產物의 生産方式에 관한 研究를 除外하면 別般 素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工場管理라는 觀點에서는 여러가지 素題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經營學의 各 分野로 區分하여 생각하는 것이 妥當하다.

(2) 經營機能論：經營計劃, 調整, 統制등의 經營機能에 관한 研究分野

(3) 計量計劃(OR)：經營課題에 대한 計量의 方法論의 應用研究는 韓國的인 特性이 介入될 素地가 全然 없는 것은 아니나 적다.

(4) 經營情報論(MIS)：經營情報의 處理 및 活用을 통한 새로운 經營方式의 應用에 관한 研究分野도 韓國的 特性이 거의 없다.

(5) 其他 經營學 各論：시스템經營, 價值工學, 人間工學, I E 등의 工學

15) 韓國經營學을 위해 經營史는 매우 重要的 分野로 看做할 수 있으나 本論 文에서는 一般 經營學의 現代의 범주만을 다루기로 하고 이에 關係서는 歷史學의 分野로 看做한다.

의 성격이 강한 經營學各論은 韓國經營學의 擡頭를 위한 理論化研究分野로서는 適合치가 못하다.

3. 綜合考察

이와같은 分野別 區分을 통해 考察하여 볼때 韓國經營學의 理論化 研究는 經營學 分野中에서 ① 人間의 個人的 側面인 經營哲學, 人間의 集團行態인 經營組織, ② 經營基本에 관한 問題分野인 經營政策, ③ 社會的 歷史와 傳統과 關聯된 財務管理, 市場論, 會計學, 企業環境論등에 集中될 수 있고 이와는 反對로 先進國에 있어서 가장 現代的 經營技法이라고 할 수 있는 生産管理, 經營技能論, 計量分析(OR), MIS, 시스템經營, 價値工學, 人間工學, I D 등의 있어서는 期待될 餘地가 적다고 볼 수 있다.

Ⅳ. 韓國經營學을 위한 理論研究의 課題

그러면 本 論文의 最終段階로서 前節에서 考察한 韓國經營學을 위한 理論的 研究가 活潑히 期待될 수 있는 經營學의 各分野에 있어서 韓國經營學의 本格的인 擡頭를 위해 提起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研究課題를 例示의으로 提示하고 이에 대한 基本的 內容을 論及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本 論文에서는 經營哲學分野, 經營政策分野, 經營組織分野, 人事管理分野에 限定하기로 한다.

1. 經營哲學分野

① 企業動機: 一般 經營學에서는 利潤動機가 大前提로 되어 있는데 比하여 韓國經營學에서는 理論構成에 大前提가되는 企業動機의 性格을 究明할 必要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廣範圍한 意見調査가 先行되어야 한다.¹⁶⁾

② 經濟合理性(economic rationality): 經營理論의 根幹이 되어 있는 微視經濟理論은 選擇公理(choice axioms)로 表現된 經濟合理性을 前提로 하여 成立되고 있다. 例를 들면 相對的 效用理論(relative utility theory)의 計量化는 choice axioms에서 派生된다. 그러면 韓國人에 經濟合理性은 一般 經濟學에서 提示되고 있는 것과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를 究明하여 理

16) 本 課題의 研究를 위해서는 이미 研究 發表된 國內 社會學的 論文이 參考가 될 것이다. 例를 들면 洪承稷著「韓國人的 師價觀」, 高大 亞細亞問題 研究所, 1969年 있다.

論化할 必要가 있다. 이는 韓國의 經濟 및 經營現象이 西歐先進國의 現象間에 差異가 있음을 說明할 수 있는 基本的 理論이 된다.

③ 韓國經營哲學의 特性: 韓國企業人의 經營에 대한 基本的 思考의 特性과 內容을 行態的(behaviorism)의 觀點에서나 經濟理論의 觀點에서 分析考察하여 그 基本類型을 判斷한다. 여기에서는 歷史的 韓國人의 思想과 的 關聯도 究明하여 본다.

④ 韓國企業/經營集團의 構成: 韓國의 基業經營界를 움직이고 있는 企業人/經營人의 人的, 社會成分的, 教育的, 文化的 그리고 其他的 여러가지 觀點에 대한 構成特性을 究明하고 韓國企業經營의 性格을 形成하는 基本因子의 一部를 明確히 한다.

⑤ 韓國企業經營의 特質: 傳統적인 韓國的 企業經營의 特質을 構成하는 因子의 그 內容特性을 明確히 設定한다.

2. 經營政策分野

⑥ 韓國經營政策의 種類와 特性: 韓國企業의 經營政策의 有無, 分野別 區分, 課題別 集中傾向, 內容特性등에 관한 一般理論을 導出하기 위한 調查方法論을 活用하는 研究가 必要하다.

⑦ 分野別 經營政策의 內容과 特性: 經營學 分野別로 上記 ⑥의 研究를 施行한다.

⑧ 經營政策과 經營實際의 關係: 韓國企業經營에 있어서 政策의 提示와 實踐化의 相互關係를 實證的으로 究明하여 政策의 效果의 限界에 관한 基本的 評價와 이에 대한 理論化가 必要하다.

⑨ 企業과 政府의 關係: 韓國에 있어서 企業과 政府의 相互關係에 대한 本質을 經營學과 經濟學의 共同的 觀點에서 分析하고 韓國固有의 政府의 大企業 機能을 明確히 設定하여 둔다.

⑩ 韓國企業經營의 國際化: 韓國經濟의 國際化 傾向과 韓國企業의 國際化 傾向의 相關關係에 관한 一般性格의 究明이 必要하다. 이는 逆으로 말하면 傳統적인 韓國經營의 特質이 退化해 나가는 樣想에 대한 理論的 研究가 되기도 한다.

3. 人事管理分野

⑪ 韓國指導性類型: 土着的이고 在來的인 韓國經營指導層의 리더십의 類型의 特徵에 관한 理論的 研究가 있을 수 있고 기필코 必要하다.

⑫ 韓國企業의 雇傭關係: 先進工業國의 企業에 있어서의 雇傭關係를 契

約의 特性을 지니는 것이라고 하면 韓國企業의 雇傭特性은 다른 社會的 要素가 보다 基本的으로 作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理論的 究明이 있을 수 있다.

⑬ 韓國經營者에 있어서의 人事原則：韓國經營者의 人事原則은 少數精銳 能率本位, 人間能力開發등의 一般 經營學의 人事原則과 差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學術的 理論化가 提起될 수 있다.

⑭ 韓國勞使關係의 模型：韓國勞動者의 集惠的 行爲의 特性과 이로 인한 企業家와의 團體交涉에 미치고 있는 樣想에 관한 模型立樹을 試圖할 수 있다.

⑮ 韓國資金의 水準과 構造：一般經營學에서 說明하는 貨金實態의 構成 因子로서의 勞動市場의 需給關係와 合理的 貨金裕差의 存在보다는 韓國貨金에는 다른 要因들이 그 水準과 構造를 左右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貨金體系의 形成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4. 組織管理分野

⑯ 企業形態의 究明：韓國社會에 固有的인 企業形態를 抽出하면 이는 韓國經營學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一般經營學을 위해서도 커다란 貢獻이 될 수도 있다.

⑰ 經營組織의 成長特性：韓國의 經營組織은 西歐先進國의 經營組織에 비하여 固有的인 特徵을 지닌 成長特性을 보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으며 따라서 이에 관한 理論的 研究가 있을 수 있다.

⑱ 經營組織에 있어서 經營機能의 階層間, 分野別 分布：韓國經營組織에 있어서 專門機能과 一般機能등의 區分에 따른 階層間, 分野別 分布類型에 관한 研究가 있을 수 있다.

⑲ 韓國經營組織의 內部的 構成特性：韓國經營組織은 韓國經營機能의 特徵을 反映하는 것이므로 經營組織構成의 特徵에 관한 理論的 研究도 重要的 것이 된다.

⑳ 韓國經營意思疎通은 극단의 閉鎖性을 지니고 展開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理論的 考察이 必要하다.

㉑ 自生組織의 特徵：韓國社會에서는 在來的으로 自生組織의 活動이 旺盛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經營組織內의 自生組織의 實相에 대한 理論 研究가 必要하다.

Ⅷ. 結 論

本 論文은 本質的으로 學問의 意義에 대한 問題意識에서 出發하여 經營學分野에 있어서 韓國經營學의 擡頭를 위한 基本的 課題를 考察하여 본 것이다.

學問이라고 하면 目的과 方法論에 있어서 다른 非學問的 思維나 記述과 區別될 수가 있는데 이는 學問은 不可避 目的이나 方法論에 있어서 學術的 要件을 滿足시켜야만 하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經營學도 그 擡頭를 위해서는 目的과 方法論이 學術的이어야 한다는 것은 再言의 餘地가 없다. 그러나 韓國經營學이라는 特殊한 學問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基本的인 要件以外에도 特殊的인 論理가 附加될 수도 있을 것이며 本 論文은 이에 관한 基本的 考察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學問의 方法論에 대해서는 韓國經營學도 一般 社會科學, 그리고 經營學의 方法論과 差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方法論이라는 學問的 研究를 위한 手段을 말하는 것이므로 여러가지 方法 또는 接近方式이 이미 널리 認定되고 있는 것이라면 一般 經營學에 있어서나 韓國經營學에 있어서나 公히 適用될 수 있다.¹⁷⁾

그러나 學問의 目的에 관해서는 本 論文은 相當히 狹義的인 制限을 前提로하여 韓國經營學의 擡頭를 考察하여 볼 것이다. 即 第 2 節에서 밝힌 바와 같이 韓國學의 目的은 4 類型으로 區分될 수 있는데 本 論文에서는 韓國固有 現象特性에 대한 理論化의 目的에 限定하는 考察을 試圖하였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本 論文이 韓國經營學의 擡頭를 韓國의 經營特性을 가진 現象을 對象으로 하는 理論抽出을 前提로 한것은 經營學을 包含한 社會科學의 學問的 完成이 決코 理論導出과 그리고 各 理論의 體系化에 있지 않을 수 없음을 감안하여 본다면 쉽게 理解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또한 韓國現象에 대한 經營學의 考察이 어떠한 類型의 考察이라 할지라도 必然的으로 學問的 要件을 忘却하여서는 안되는 것임을 強調하기 위한 必要性과도 結

17) 勿論 韓國經營學에 보다 效果的인 方法論의 擡頭可能性을 論理的으로 全的 排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本 論文은 이에 대해서는 關心을 두지 않은 것이다.

付되어 있는 것임은 明白하다.

그러면 本 論文의 結論을 擴大 理解하면 韓國經營學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出現할 韓國經營現象에 관한 第1, 第2 및 第3의 類型으로 區分되는 여러가지 研究結果를 綜合的으로 또는 個別的으로 活成하여 韓國經營特性의 理論的 究明을 完成하는 것이 韓國經營學을 健全하게 擡頭시키는 것이 되는 것임을 밝히는 것이 된다.¹⁸⁾

本 論文에 있어서 韓國經營學의 擡頭를 위한 理論的 研究의 分野 및 課題에 관한 究明을 完避한 것을 總網羅할 수는 없다. 그것은 經營學의 分野나 課題의 餘地는 事實上 無限이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닌 까닭이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다만 理論的 韓國經營學의 擡頭의 素地가 充分히 있음을 指摘하는 뜻에서 概略的인 考察을 한 것이다.¹⁹⁾

18) 앞서 考察이 言及된바와 같이 理論化의 水準에 도달한 韓國經營에 관한 既發表 論文은 編數는 적으나 全然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論文들을 보다 具體的으로 考察하여 本 論文에서 여러가지 特徵에 대한 結論을 얻기에는 너무도 적은 數量이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오직 例示를 한다는 意味에서 著者が 既發表한 關係論文을 指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徐南源, "The Transitional Pattern of Korean Industrial management", ILCORK Paper # 14,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Hawaii, 1971.

(“企業化過程에 있어서 韓國經營의 變形的 特性(I)”, 經營論叢, 第18輯, 高麗大學校, 經營大學, 1973, PP.69-84.)

19) 끝으로 本 論文을 着想하여 執筆하게된 根本的 動機는 이제 韓國에 있어서의 經營研究가 外國으로 부터의 理論의 導入, 研究結果의 適用, 經營特性의 比較等의 水準을 脫皮하여 이제 名實共히 獨自的인 學術活動이 可能함을 對內外에 立證할 수 있는 段階로 前進할 必要性이 있음을 認識하게 되는 契機가 마련이 되어야 함을 提言하는데 있음을 附記하여 둔다.

